

유아의 기질과 모의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이 아 랍 진 미 경¹⁾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놀이치료전공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과 모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확인하고, 유아의 기질과 모의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6세 유아의 어머니 372명이었다. 유아의 기질 척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척도, 한국판 양육효능감 척도(K-EGSCP)를 사용하여 각 변인을 측정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의 기질 하위요인인 규칙적 기질, 적응적 기질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영역별 양육효능감(훈육, 놀이, 애정, 일상체계조직, 교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영역별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유아의 규칙적 기질 및 적응적 기질이 어머니의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배우자와의 정서적 관계의 만족감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효율적인 양육수행을 돕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과 모의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이를 완충해주는 긍정적인 조절변인인 모의 결혼만족도의 역할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유아의 기질, 결혼만족도, 모의 영역별 양육효능감

* 이 논문은 2015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놀이치료전공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교신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놀이치료전공, 부교수 (E-mail: mkjin12@sookmyung.ac.kr)

I. 서론

부모는 유아가 접하는 최초의 환경으로, 부모의 건전한 가치관과 의식, 태도 및 행동 등을 포괄하는 양육은 유아의 성격 형성과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의 성장에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로서(정안나, 2007), 양육과정에 큰 역할을 맡고 있다(서석원, 이대균, 2013; 홍정유, 2007).

그러나 어머니들은 양육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영숙, 박연환, 김윤미, 2009; 안지영, 2001). 이와 관련하여 최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2014)에 의하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10명 중 7명(72.5%)은 육아부담으로 인해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양육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머니의 심리적 어려움이 높게 보고되고 있는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양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선희, 2005; 김현미, 도현심, 2004; 문혁준, 2005; 서소정, 2004). 그 중에서 양육효능감은 자녀양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인지적 동기를 갖게 하며(Teti, O'Connell, & Reiner, 1996), 부모의 인지와 행동을 연결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김민정, 도현심, 신나나, 최미경, 2013; 안지영, 2001; 이경하, 서소정, 2012; 최형성, 2002; 한윤정, 2013). 이러한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믿음으로, 다양한 양육영역에서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에 대

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이정윤, 장미경, 2009; Teti & Gelfand, 1991). 이와 관련하여 Coleman과 Karraker(1997)의 연구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양육에 있어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음으로써,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이끌고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양육의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정서적 혼란을 겪으며 양육에 있어 비일관성을 보인다. 그 외 다른 연구들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나타내게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문혁준, 1999; Mondell & Tyler, 1981). 따라서 높은 양육효능감은 어머니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요소이며 자녀양육에 대한 개입에 있어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영, 서소정, 2010; Cutrona & Troutman, 1986; Teti & Gelfand, 1991).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높은 양육효능감이 자녀양육에서 중요하다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양육효능감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크게 유아관련 변인과 부모관련 변인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먼저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유아관련 변인으로는 유아의 기질, 놀이성, 자율성, 또래유능성(남운화, 2012; 노승구, 2012; 박인숙, 2013; 박혜원, 2012; 안라리, 김정아, 2005; 이경하, 서소정, 2012; 이윤진, 2007; 정점옥, 2009; 최형성, 2002; 최형성, 정옥분, 2005; 홍계옥, 2003)과 같은 유아의 개인 내적 차원의 변인들이 양육효능감을 예측해주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유아관련 변인 중에서 기질은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비교적 지속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개인의 독특한 행동양식을 말한다(서주현, 2009; Thomas & Chess, 1977). 이러한 기질은 주 양육자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는데(박홍주, 2009; 이운정, 2014; 최형성, 2002; Brent, Sarah, & Thomas, 2002; Buss & Plomin, 1984),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서 어머니가 양육에서 경험하는 정서 및 인지에 차이가 생기고 이것이 역할 수행에의 자신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서소정, 2004; 이운정, 2014). 구체적으로, 다루기가 까다롭고 만성적으로 산만한 유아의 행동에 대처해야 하는 어머니는 쉽게 지쳐서 낮은 양육효능감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김민정 등, 2013; 남운화, 2012; Goldberg, 1977). 반면 예측이 가능한 행동패턴의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유아의 기질이 양육에서의 성공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양육에 대한 자신감은 더욱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문혁준, 2005; 이경하, 서소정, 2012; Buss & Plomin, 1984; Cutrona & Troutman, 1986).

이와 관련하여 기질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유아가 적응성이 높고 생리적 기능의 주기가 규칙적일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홍주, 2009; 최형성, 2002; Buss & Plomin, 1984). 반면 화를 잘 내고 달래기가 힘들며 활동성이 지나치게 높고 산만한 유아는 양육자를 지치게 하므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야기하여 이는 어머니의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서소정, 2004;

이영은, 강양희, 박혜선, 황은주, 문미영, 2003; 이유진, 박경, 2005). 이를 종합해보면,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성공 및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기질과 같은 유아관련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부모 자신과 직접 관련되는 변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여 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최형성, 2005). 이에 따라 양육효능감을 설명하기 위해 부모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결혼만족도, 사회적지지, 양육지식,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김도희, 이경은, 2009; 김정주, 김용미, 2007; 박수경, 2013; 박영애, 나종혜, 2003; 박희진, 문혁준, 2013;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정미현, 2012; 최형성, 2002; 한운정, 2013)와 같은 변인들이 양육효능감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들 중에서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과 배우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허조은, 2010),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체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임희수, 2013; 최규련, 1993). 그 중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및 양육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Davies & Cummings, 1994; Erel & Burman, 1995). 즉, 어머니의 부부관계의 질이 자녀의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육효능감은 개인에게 중요한

타인의 격려와 신임을 통해서 높게 유지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Bandura, 1997).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중요한 타인인 배우자의 격려와 지지는 양육에서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성공적으로 양육을 수행할 수 있다는 동기를 일으키며 이것이 유지되도록 한다(이정신, 2009). 이를 통하여 볼 때,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경험하도록 돕는 주요한 요인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결혼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부의 긍정적인 결혼만족도는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박수경, 2013; 신숙재, 1997; 임희수, 2013; 한운정, 2013; Katz & Woodin, 2002; Ponnet et al., 2013; Sevigny & Loutzenhiser, 2010; Wieland & Baker, 2010).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원만한 부부관계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고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을 하게 되므로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지며, 이것은 자녀의 성장환경 및 유아의 발달영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보았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아가 생리적 규칙성이 높고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보다 적응적인 기질일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연구들(박홍주, 2009; 최형성, 2002, Buss & Plomin, 1984)이 있는 반면, 쉽게 기분이 나빠지며 산만하고 활동성이 매우 높은 기질일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낮아진다(서소정, 2004; 이영은 등, 2003; 이유진, 박경, 2005)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를 통해, 적응적인 기질 또는 규칙적인 기질의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주의가 산만하여 집중력이 낮

으며 높은 활동성을 지니는 매우 활발한 기질의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다루기 힘든 기질의 유아를 양육하는 모든 어머니가 양육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의 인지적 지각에 따라 양육효능감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러한 인지적인 요인은 어머니의 정서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이정운, 장미경, 2009)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언급된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정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며(Belsky, Crnic, & Woodworth, 1995), 배우자에 대한 관계적 만족감은 부부간의 정서적 갈등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spill over효과를 갖게 된다(백경숙, 2011). 이와 관련한 연구에 따르면, 낮은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무기력증을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감정은 양육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더 증폭시킴으로써,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elsky, 1984). 반면 높은 결혼만족도는 부부간의 지지적이고 신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한다(김정주, 김용미, 2007).

이를 토대로 볼 때, 비슷한 수준의 다루기 힘든 기질의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관계에서의 만족 정도에 따라서, 양육에서의 문제 상황을 대처하는 데에 필요한 효능감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높은 결혼만족감은 다루기 힘든 기질의 유아에 대처해야 하는 어머니에게 필요한 양육효능감에 보호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유아의 기질과 양육효능감 사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예측변인인 유아의 기질이 준거변인인 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조절변인인 결혼만족도도 준거변인인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단순히 양육효능감에 대한 예측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가정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편 양육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자녀 양육의 전반적인 상황과 양육행동에 관한 일반적인 효능감을 다루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Bandura(1997)는 일반적으로 측정된 효능감보다 영역별로 구분하여 측정된 효능감이 해당 영역에서 개인이 가진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한다고 하였다. 이에 양육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부모의 효능감을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Coleman & Karraker, 1997; Teti & Gelfand, 1991). 이와 관련하여 Meunier와 Roskam(2009)에 따르면, 구체적인 양육과제를 비슷한 영역으로 묶고 각각의 영역에서 부모가 인지하는 영역별 양육효능감(Coleman & Karraker, 2003)을 측정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양육효능감을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훈육, 놀이, 애

정, 교육 등의 양육 상황에서의 영역별 양육효능감을 측정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영역별 양육효능감에서 유아의 기질과 결혼만족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들을 위한 교육 및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유아의 기질이 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모의 결혼만족도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유아의 기질과 모의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모의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의 표집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 5곳과 유치원 2곳에 재원중인 만 3-6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총 5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396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다수의 결측치를 포함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72부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자녀 성별은 남아 174명(46.8%), 여아 195명(52.4%)이고 자녀의 나이는 만 3세

표 1. 연구대상 어머니와 유아의 일반적 특성
(N = 372)

변 인	구분	N(%)
유아 성별	남아	174(46.8)
	여아	195(52.4)
유아 연령	만 3세	57(15.3)
	만 4세	99(26.6)
	만 5세	115(30.9)
	만 6세	101(27.2)
어머니의 연령	만 29세 이하	17(4.5)
	만 30-34세	98(26.3)
	만 35세-39세	173(46.5)
	만 40세 이상	84(22.6)
어머니의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9(26.6)
	전문대 졸업	119(32.0)
	4년제 대학교 졸업	126(33.9)
	대학원 졸업 이상	26(7.0)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업	198(53.2)
	전업주부	149(40.1)

주. 중복응답 및 무응답으로 인하여 변인마다 사례수의 차이가 있음.

57명(15.3%), 만 4세 99명(26.6%), 만 5세 115명(30.9%), 만 6세 101명(27.2%)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어머니와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2. 측정도구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정판 기질차원 검사(DOTS-R; 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Windle & Lerner, 1986)를 재구성한 서주현(200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DOTS-R 척도는 10개 하위 영역의 총 54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서주현(2009)의 기질 척도는 각 하위 영역별로 3문항을 추출하여 총 30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개정판 기질차원 검사의 문항과 동일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서 나타내는 유아의 기질 특성에 대해 어머니가 얼마나 기대하는지를 Likert 4점 척도(1점=대개 그렇지 않다 ~ 4점=대개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 기질의 하위 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해당 기질의 특징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적응적 기질 요인은 총 9문항으로 유연성, 접근성, 긍정적 기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응적 기질 요인은 경직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으며 유연성과 접근성이 높고 기분이 긍정적이어서 적응력이 높은 속성을 의미한다. 두 번째, 활발한 기질 요인은 총 12문항으로 활동수준, 주의분산, 주의집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발한 기질 요인은 활동수준이 높고 주의분산 정도가 높으며 주의집중이 낮은 활발한 속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규칙적 기질요인은 총 9문항으로 수면이나 식사, 일상습관이 모두 규칙적인 속성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적응적 기질 .78, 활발한 기질 .73, 규칙적 기질 .82로 나타났다.

모의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Olson, Fournier, & Druckman(1981)의 ENRICH

(Enriching &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 Happiness)척도 중 Fowers와 Olson(1993)이 축소버전으로 제시한 10문항을 번역 및 보완한 허조은(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 차원적 척도로 구성되었고 각 척도의 문항별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이며, Likert 5점 척도로 평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혼만족도 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값은 .90으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영역별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Meunier와 Roskam(2009)이 제작한 양육효능감 척도인 Echelle Globale du Sentiment de Competence Parentals(EGSCP)를 성지현과 백지희(2011)가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인 한국판 양육효능감 척도(K-EGSCP)를 사용하였다. Meunier와 Roskam(2009)은 효능감은 영역별로 측정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EGSCP는 훈육, 애정, 놀이, 일상체계조직, 교육의 다양한 양육 상황에서 부모가 가진 영역별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성지현, 백지희, 2011). 또한 EGSCP는 제작자에 의하여 영문으로 번안되어 게재되었으며, 영문명은 General Scale of Parent SEBs이다. K-EGSCP의 영역별 양육효능감은 만 1세에서 7세 사이의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훈육 5문항, 놀이 5문항, 애정 5문항, 일상체계 조직 4문항, 교

육 3문항으로 총 22문항이다. 영역별 양육효능감 문항의 예로는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아이와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훈육)”, “나는 아이와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놀이)”, “내 아이는 나에게 매우 사랑 받고 있다고 느낀다(애정)”, “나는 내 아이가 규칙적으로 일정을 해내게 하지 못한다(일상체계조직)”, “나는 내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적절한 수준의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렵다(교육)” 등이 있다. 양육효능감 측정을 위한 문항의 반응양식은 Likert 6점 척도로, 응답자인 어머니의 평상시 모습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6점까지로 응답하게 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별 Cronbach α 계수는 훈육영역 양육효능감이 .78, 놀이영역 양육효능감 .86, 애정영역 양육효능감 .86, 일상체계조직영역 양육효능감 .80, 교육영역 양육효능감 .80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15년 1월 첫째 주부터 2월 첫째 주까지 5주간 진행되었고,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연락을 하여 연구의 취지를 밝히고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기관에는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들에게 질문지 조사방법 및 응답 시 유의사항을 전달하였고, 각 교사들은 질문지를 각 가정으로 배포하였으며, 약 1주일 후 다시 방문하여 회수하고 측정하였다.

4. 자료 분석

질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유아의 기질, 모의 영역별 양육효능감,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기질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영역별 양육효능감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해 결혼만족도 총점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영역별 양육효능감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문제 3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기질을 예측변인으로, 결혼만족도를 조절변인으로, 영역별 양육효능감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그 값이 유의할 경우에 예측변인과 조절변인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조절변인의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1, 2, 3의 분석에 앞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예측변인인

유아의 기질, 조절변인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그리고 준거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예측변인인 유아의 기질과 준거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확인 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질의 하위요인인 적응적 기질과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훈육($r = .31, p < .001$), 놀이($r = .32, p < .001$), 애정($r = .48, p < .001$), 일상체계조직($r = .27, p < .001$), 교육($r = .36, p < .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기질의 하위요인인 규칙적 기질 또한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훈육($r = .28, p < .001$), 놀이($r = .41, p < .001$), 애정($r = .49, p < .001$), 일상체계조직($r = .51, p < .001$), 교육($r = .35, p < .001$)과 $p < .001$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기질의 하위요인인 활발한 기질과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훈육영역 양육효능감($r = -.14, p < .01$)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조절변인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준거변인인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확인 해 보면, 결혼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훈육($r = .24, p < .001$), 놀이($r = .35, p < .001$), 애정($r = .43, p < .001$), 일상체계조직($r = .29, p < .001$), 교육($r = .35, p < .001$)이 $p < .001$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1. 유아의 기질이 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인 유아의 기질의 하위요인인 적응

표 2. 유아의 기질, 모의 결혼만족도,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 (N = 372)

	1-1	1-2	1-3	2	3-1	3-2	3-3	3-4	3-5
1. 유아의 기질									
1-1. 적응적 기질	1								
1-2. 활발한 기질	.11*	1							
1-3. 규칙적 기질	.39***	-.17***	1						
2. 결혼만족도	.27***	-.13*	.34***	1					
3. 양육효능감									
3-1. 훈육	.31***	-.14**	.28***	.24***	1				
3-2. 놀이	.32***	-.04	.41***	.35***	.40***	1			
3-3. 애정	.48***	-.05	.49***	.43***	.44***	.62***	1		
3-4. 일상체계조직	.27***	-.10	.51***	.29***	.37***	.39***	.40***	1	
3-5. 교육	.36***	-.05	.35***	.35***	.47***	.52***	.53***	.45***	1
평균	26.76	30.79	26.08	33.18	20.90	19.94	21.78	17.18	13.06
표준편차	3.97	4.54	4.36	7.40	3.91	4.55	4.08	3.36	2.61

* $p < .05$. ** $p < .01$. *** $p < .001$.

적 기질, 활발한 기질, 규칙적 기질이 준거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훈육영역 양육효능감에 대한 유아의 기질의 설명력은 14%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 = 20.52, p < .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질의 하위요인인 적응적 기질($\beta = .27, p < .001$), 규칙적 기질($\beta = .15, p < .01$), 활발한 기질($\beta = -.14, p < .01$)의 순으로 훈육영역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유아가 적응적, 규칙적 기질일수록 어머니의 훈육영역 양육효능감은 높아지지만, 유아가 활발한 기질일수록 어머니의 훈육영역 양육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놀이영역 양육효능감에 대

한 유아의 기질의 설명력은 20%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 = 29.92, p < .001$). 기질의 하위요인인 적응적 기질($\beta = .20, p < .001$), 규칙적 기질($\beta = .33, p < .001$)이 놀이영역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활발한 기질은 놀이영역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적응적, 규칙적 기질일수록 어머니의 놀이영역 양육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에 대한 유아의 기질의 설명력은 34%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 = 63.15, p < .001$). 기질의 하위요인인 적응적 기질($\beta = .35, p < .001$), 규칙적 기질($\beta = .35, p < .001$)이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에 활발

표 3. 유아의 기질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 = 372)

준거변인	예측변인	B	β	t	R ²	F
훈육영역 양육효능감	적응적 기질	.26	.27	4.95***	.14	20.52***
	활발한 기질	-.12	-.14	-2.78**		
	규칙적 기질	.14	.15	2.83**		
놀이영역 양육효능감	적응적 기질	.22	.20	3.67***	.20	29.92***
	규칙적 기질	.35	.33	6.36***		
애정영역 양육효능감	적응적 기질	.36	.35	7.39***	.34	63.15***
	규칙적 기질	.33	.35	7.41***		
일상체계조직영역 양육효능감	규칙적 기질	.36	.47	9.30***	.26	44.11***
교육영역 양육효능감	적응적 기질	.18	.27	5.12***	.18	27.33***
	규칙적 기질	.14	.24	4.57***		

** $p < .01$. *** $p < .001$.

한 기질은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적응적, 규칙적 기질일수록 어머니의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상체계조직영역 양육효능감에 대한 유아의 기질의 설명력은 26%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 = 44.11$, $p < .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질의 하위요인 중 규칙적 기질($\beta = .47$, $p < .001$)이 일상체계조직영역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적응적 기질과 활발한 기질은 일상체계조직영역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규칙적 기질일수록 어머니의 일상체계조직영역 양육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영역 양육효능감에 대한 유아의 기질의 설명력은 18%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 = 27.33$, p

$< .001$). 이에 대해 확인해보면, 기질의 하위요인인 적응적 기질($\beta = .27$, $p < .001$)과 규칙적 기질($\beta = .24$, $p < .001$)이 교육영역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활발한 기질은 교육영역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적응적, 규칙적 기질일수록 어머니의 교육영역 양육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모의 결혼만족도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도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결혼만족도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훈육, 놀이, 애정, 일상체계조직, 교육영역 양육효능감을 준거변

표 4. 결혼만족도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N = 372$)

준거변인	예측변인	B	β	t	R^2	F
훈육영역 양육효능감	결혼만족도	.13	.24	4.83***	.06	23.29***
놀이영역 양육효능감		.22	.35	7.27***	.13	52.79***
애정영역 양육효능감		.24	.43	9.11***	.18	82.99***
일상체계 조직영역 양육효능감		.13	.29	5.91***	.09	34.90***
교육영역 양육효능감		.12	.35	7.08***	.12	50.08***

*** $p < .001$.

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혼만족도는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훈육($\beta = .24, p < .001$), 놀이($\beta = .35, p < .001$), 애정($\beta = .43, p < .001$), 일상체계조직($\beta = .29, p < .001$), 교육($\beta = .35, p < .001$)영역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결혼만족도는 훈육영역 양육효능감에 대해 6%($F = 23.29, p < .001$)의 설명력을 보였고, 놀이영역 양육효능감을 13%($F = 52.79, p < .001$),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을 18%($F = 82.99, p < .001$), 일상체계조직영역 양육효능감을 9%($F = 34.90, p < .001$), 교육영역 양육효능감을 12%($F = 50.08, p < .001$)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훈육, 놀이, 애정, 일상체계조직, 교육영역 양육효능감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유아의 기질과 모의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양육효능감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기질의 하위요인과 결혼만족도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다음 2단계에서는 1단계에 투입된 변인들과 함께 유아의 기질의 하위요인과 결혼만족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그 상호작용항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적응적 기질’ 및 ‘규칙적 기질’과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기질의 각 하위요인과 훈육, 놀이, 일상체계조직, 교육영역별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는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가 유

표 5. 유아의 기질이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N=372$)

준거변인	단계	예측변인	β	R^2	ΔR^2	F
애정 영역 양육 효능감	1	적응적 기질 (A)	.40***	.33	.33	90.08***
		결혼만족도 (B)	.32***			
	2	적응적 기질 (A)	.78***	.34	.01	61.93***
		결혼만족도 (B)	.90***			
		(A) x (B)	-.78*			
애정 영역 양육 효능감	1	규칙적 기질 (A)	.40***	.32	.32	85.83***
		결혼만족도 (B)	.30***			
	2	규칙적 기질 (A)	1.14***	.35	.03	64.52***
		결혼만족도 (B)	1.28***			
		(A) x (B)	-1.44***			

* $p < .05$. *** $p < .001$.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절효과가 나타난 경우만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적응적 기질과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확인해 보면, 적응적 기질과 결혼만족도는 1단계에서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이 33%로 유의하였다 ($F = 90.08, p < .001$). 이후 2단계에서 추가로 적응적 기질과 결혼만족도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였으며, 그 설명력은 34%로 유의하였다 ($F = 61.93, p < .001$). 즉, 적응적 기질과 결혼만족도의 설명력에 더하여 상호작용 변인에 의해 1%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적응적 기질과 결혼만족도의 상호작용 변인이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78, p < .05$).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적응적 기질이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결혼만족도가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규칙적 기질과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분석해 보면, 규칙적 기질과 결혼만족도는 1단계에서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이 32%로 유의하였다($F = 85.83, p < .001$). 또한 2단계에서 추가로 규칙적 기질과 결혼만족도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후에는 설명력이 35%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 = 64.52, p < .001$). 즉, 규칙적 기질과 결혼만족도의 설명력에 더하여 상호작용 변인에 의해 3%의 증분설명력을 보였으며, 이러한 규칙적 기질과 결혼만족도의 상호작용효과는 주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44, p < .001$).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규칙적 기질이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결혼만족도가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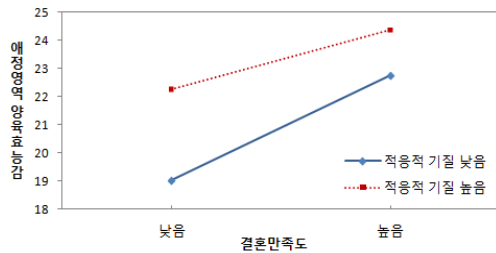


그림 1. 적응적 기질과 결혼만족도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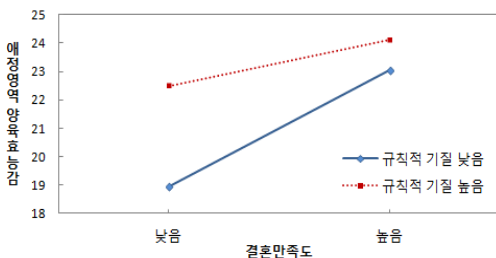


그림 2. 규칙적 기질과 결혼만족도의 상호작용효과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된 조절효과의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1, 2를 제시하였다. 그림 1, 2의 결과를 보면, 유아의 적응적 기질 및 규칙적 기질이 높은 집단이나 낮은 집단이나 모두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 때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양상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유아의 적응적 기질 및 규칙적 기질이 높은 집단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수준에 따라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이 완만한 상승적 변화를 보이지만, 유아의 적응적 기질 및 규칙적 기질이 낮은 집단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수준에 따른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이 보다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적응적 기질 및 규칙적 기질이 낮다고 지각하는 어머니 집단은 결혼만족도가 낮으면 애정

영역 양육효능감 수준이 매우 떨어지지만, 유아의 적응적 기질 및 규칙적 기질이 낮다고 하더라도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유아의 기질의 하위요인인 ‘규칙적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훈육, 놀이, 애정, 일상체계조직, 교육)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수면, 식사, 배설에 관련된 생리적 기능의 주기가 규칙적일수록 어머니의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예측이 가능한 행동패턴을 보이는 규칙적인 기질의 유아에 의해 더욱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김민정 등, 2013; 남운화, 2012; 문혁준, 2005; 박홍주, 2009; 이경하, 서소정, 2012; 이윤정, 2014; 이윤진, 2007; Buss & Plomin, 1984; Cutrona & Troutman, 1986)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아의 기질의 하위요인인 ‘적응적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훈육, 놀

이, 애정, 교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적응적인 기질일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응적 기질은 유연성과 접근성이 높은 특성(서주현, 2009)으로, 유아가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도 높다는 선행연구들(김민정 등, 2013; 남운화, 2012; 이윤진, 2007; 최형성, 2002)과 일치한다. 또한 긍정적 기분을 많이 나타내는 것도 적응력이 높은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주현, 2009),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유아의 어머니는 양육효능감이 낮다는 연구결과(문혁준, 2005; 이경하, 서소정, 2012; 이윤정, 2014)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유아의 기질의 하위요인 중 ‘활발한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훈육영역 양육효능감’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가 활발한 기질일수록 어머니의 훈육영역 양육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된 활발한 기질은 활동수준이 높고 주의분산 정도가 높으며 주의집중이 낮은 활발한 속성을 의미(서주현, 2009)하는 것으로, 과잉행동 및 산만한 유아의 행동에 대처해야하는 어머니들이 낮은 양육효능감을 지각한다는 연구결과(김민정 등, 2013; 남운화, 2012; 이영은 등, 2003; 이윤정, 2014; Goldberg, 1977; Mash & Johnston, 1983)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활동성이 높은 기질일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연구결과(문혁준, 2005; 박혜원, 2012; 이경하, 서소정, 2012; 하지영, 서소정, 2010)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자녀의 높은 활동성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므로, 매우 활발한 기질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Coleman과 Karraker(2000)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높은 활동성은 부모에게 문제로 인식되기 보다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긍정적인 행동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활동성이 높은 기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양육효능감에 대한 지각에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가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활동성이 높은 기질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의 결과는 이에 대한 추후 연구를 통해 더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유아의 기질과 모의 양육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위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어머니가 유아의 기질을 보다 적응적이고 규칙적인 기질이라고 지각할수록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유아가 활동수준이 높고 산만하다고 판단될수록 어머니의 훈육영역에서의 양육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양육효능감에서 어머니의 주관적 지각은 중요한 요소라고 보이는데, 효능감이 개인의 인지적 과정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Bandura, 1997). 따라서 어머니가 유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가 양육으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유아의 기질적 부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기질적인 문제는 부모의 훈육에 의해 쉽게 변화되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아의 기질적 성향에 대한 다각

적인 관점에서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 상담사 및 의사와 같은 제 3자에 의한 관찰 또는 행동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아동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질적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육에서의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 지식 및 기술에 관한 부모교육과 상담적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결혼만족도는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훈육, 놀이, 애정, 일상체계조직, 교육)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혼생활 및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높은 만족감이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권정윤, 정미라, 박수경, 이방식, 2013; 김정주, 김용미, 2007; 신숙재, 1997; 임희수, 2013; 한윤정, 2013)와 일치하며, 불안정한 부부관계 및 낮은 결혼만족도는 부부의 기능을 떨어뜨려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박수경, 2013; Belsky, 1984; Sevigny & Loutzenhisser, 2010)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결혼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써,

유아기 자녀의 양육에 있어 부부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유아의 기질의 하위요인인 ‘적응적 기질’, ‘규칙적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경향성이 ‘적응적 기질’ 및 ‘규칙적 기질’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적응적 기질’ 및 ‘규칙적 기질’이 높은 집단은 어머니의 결혼만족수준에 따라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이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적응적 기질’ 및 ‘규칙적 기질’이 낮은 집단은 어머니의 결혼만족수준이 높아질수록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적응적 기질’ 및 ‘규칙적 기질’이 낮을 때, 어머니의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에 대한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가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가 보다 덜 적응적이고 규칙적인 성향을 보일지라도 어머니가 결혼만족수준을 높게 지각한다면, 자녀양육 시에 정서적 측면에서의 양육효능감이 더욱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배우자와의 높은 관계적 만족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반면 생활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이정순, 2003; 문혁준, 2003)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정서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으로써, 중요한 타인이 어머니에게 애정과 신뢰 등의 관심을 가질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증가한다고 한 연구결과(박희진, 문혁준, 2013)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보면,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관계 및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각각의 변인이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유아의 규칙적 기질과 적응적 기질이 어머니의 애정영역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유아의 기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였느냐에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수행에서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결국 부부가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존중하고 배려할 때 더 높은 양육효능감을 갖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배우자와의 관계적 만족감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인 바탕에서 양육효능감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혼만족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다소 편중되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표집 지역을 넓혀 연구 대상을 고르게 한다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좀 더 용이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어머니들의 자기 보고식 질

문지로 수집되었다. 어머니가 지각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분석하였으므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편견 개입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보고자를 포함하는 연구설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질문지법외에도 관찰법이나 면담법 등의 조사방법을 실시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영역별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다른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갖는 변인들을 포함하여 이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정윤, 정미라, 박수경, 이방식 (2013). 만2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7, 179-201.
- 김도희, 이경은 (2009).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경로분석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77-98.
- 김민정, 도현심, 신나나, 최미경 (2013).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2), 101-119.

- 김선희 (2005). 유아의 탄력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영향. 유아교육연구, 25(4), 191-209.
- 김정주, 김용미 (2007). 아버지의 역할수행, 결혼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 50(1), 113-137.
- 김현미,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남운화 (2012).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신념에 따른 양육효능감.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승구 (2012). 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인과 모형 분석.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혁준 (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문혁준 (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생활만족도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24(5), 59-75.
- 문혁준 (2005). 취학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6(5), 139-149.
- 박수경 (2013).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결혼만족도, 사회적지지 그리고 문화적응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숙, 박연환, 김윤미 (2009). 3세 미만 유아를 둔 도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 스트레스연구, 17(4), 349-357.
- 박영애, 나종혜 (2003). 출산전후 여성의 양육관련 신념 및 부모효능감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2(3), 287-301.
- 박인숙 (2013). 유아의 적응에 영향 미치는 기질, 놀이성,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간의 구조모형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3(3), 283-302.
- 박혜원 (2012). 유아의 기질 및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를 매개변인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홍주 (2009). 조모와 손자녀의 기질, 조모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진, 문혁준 (2013).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지지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0(3), 81-98.
- 백경숙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와 결혼만족도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2), 181-198.
- 서석원, 이대균 (2013).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및 영아의 정서성 기질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3(5), 279-298.
- 서소정 (2004). 자녀양육행동 매개 모델: 양육효능감. 대한가정학회지, 42(4), 11-27.
- 서주현 (200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지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지현, 백지희 (2011). 한국판 양육효능감 척도(K-EGSCP)의 타당화 연구: 영역별 양육효능감과 관련 인지구조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4), 135-150.

-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165-183.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라리, 김정아 (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또래유능성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36(1), 329-350.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하, 서소정 (2012).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영아발달 간의 관계 연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53-77.
- 이영은, 강양희, 박혜선, 황은주, 문미영 (2003). 어머니가 지각한 영아기질과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도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19(2), 206-220.
- 이유진, 박 경 (2005).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5(2), 39-57.
- 이윤정 (2014). 아동 기질과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취업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85, 117-136.
- 이윤진 (2007).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순 (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3), 5-19.
- 이정신 (2009).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원이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운, 장미경 (2009).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의 관계: 자녀양육 관련 비합리적 사고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9(2), 1-16.
- 임희수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사회적지지, 양육효능감 및 정서표현성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현 (2012). 양육지식과 양육효능감의 관계. *부모교육연구*, 9(2), 21-33.
- 정안나 (2007).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점옥 (2009). 영아의 사회, 정서적 행동,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 (1993).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 학동기자녀를 둔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 최형성 (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형성 (2005). 남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및 아동의 기질. *아동학회지*, 26(1), 317-328.
- 최형성, 정옥분 (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 대한 인과관계 모형: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2(1), 51-67.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4. 06. 26).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www.kostat.go.kr
- 하지영, 서소정 (2010). 영아의 기질과 발달수준 및 어머니의 양육 특성 변인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2), 151-168.
- 한윤정 (2013).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원가족경험과 결혼만족도 및 양육효능감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조은 (2010). 부부의 자아상태와 인생태도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TA이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계옥 (2003). 유아의 성·연령·기질, 어머니 기질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관계. *유아교육학회*, 23(4), 5-22.
- 홍정유 (2007). 어머니의 놀이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elsky, J., Crnic, K., & Woodworth, S. (1995). Personality and parenting: Exploring the mediating role of transient mood and daily hassles. *Journal of Personality*, 63(4), 905-929.
- Brent, M. A., Sarah, J. S., & Thomas, R. R. (2002). Child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arental involvement: Father versus moth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9987-1011.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0).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 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s*, 49(1), 13-24.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al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2), 126-148.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6), 1507-1518.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411.
- Erel, O., & Burman, B. (1995).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1), 108-132.

- Fowers, B. J., & Olson, D. H. (1993). ENRICH Marital Satisfaction Scale: A brief research and clinical too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2), 176-185.
- Goldberg, S. (1977). Social competence in infancy: A model of parent-infant interaction. *Merrill-Palmer Quarterly of Behavior and Development*, 23(3), 163-177.
- Katz, L. F., & Woodin, E. M. (2002). Hostility, hostile detachment, and conflict engagement in marriages: Effects on child and family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3(2), 636-651.
- Mash, E. J., & Johnston, C. (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task situ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1), 86-99.
- Meunier, J. C., & Roskam, L. (2009). Self-efficacy beliefs amongst parents of young children: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5), 495-511.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 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1), 73-78.
- Olson, D. H., Fournier, D. G., & Druckman, J. M. (1981). Assessing marital and premarital relationships: The PREPARE-ENRICH inventories. In E. E. Filsinger (Ed.),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pp. 229-250). Beverly Hills: CA-Sage Publications.
- Ponnet, K., Mortelmans, D., Wouters, E., Leeuwen, K. V., Bastiais, K., & Pasteels, I. (2013).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relationship as determinants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Personal Relationships*, 20(2), 259-276.
- Sevigny, P. R., & Loutzenhiser, L. (2010). Predictors of parenting self-efficacy in mothers and fathers of toddler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6(2), 179-189.
- Teti, D. M., O'Connell, M. A., & Reiner, C. D. (1996). Parenting sensitivity, parental depression, and child health: The mediational role of parental self-efficacy. *Early Development and Parenting*, 5(4), 237-250.
- Teti, O.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Wieland, N., & Baker, B. L. (2010). The role of marital quality and spousal support in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with without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4(7), 620-633.
- Windle, M., & Lerner, R. M. (1986). Reassessing the dimension of temperamental individuality across the life span: The 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DOTS-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213-229.

1 차원고접수 : 2015. 07. 08.

수정원고접수 : 2015. 08. 12.

최종게재결정 : 2015. 09. 01.

The Moderating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Efficacy

Lee, A Ram

Jin, Mi Kyoung

Dept. of Play Therapy, Graduate of Social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efficacy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South Korea. The subjects were 372 mothers with children aged 3-6. We used a preschool child's temperament questionnaire, marital satisfaction scale and the (Korean version of Echelle Globale du Sentiment de Competence Parentals, K-EGSCP)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ed that preschoolers' tempera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that domain-specific parenting efficacy was predicted by adaptive temperament and regular temperament. Second, parenting efficacy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Third, marital satisfaction had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aptive temperament and nurturance, which was a factor of domain-specific parenting efficacy. Fourth, marital satisfaction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r temperament and nurturance. Likewise, this study confirms the moderating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parenting efficacy of preschoolers' mothers.

Keywords: preschoolers' temperament,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domain-specific parenting efficacy